

제주대신문

5600원 어치 식당 아주머니의 한 시간

근로장학생은 임금 인상, 근로자는 최저시급

학교 지원금 0원, 임대료·시설유지비도 자체부담

생협, “백두관 식당 적자 커서 어쩔 수 없어”

“어휴 처음 오는 사람은 힘들어서 다 도망가, 우리처럼 5~6년 일하면 몸에 배여서 그냥 참고 하는 거지.”

힘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김희영(가명) 아주머니가 애써 답답하게 대답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가 운영하는 백두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3일에 한 번은 새벽 6시에 출근해야 한다. 매일 18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그대가로 시간 당 최저시급 5600원을 받는다. 평직원 10명의 평균 월급은 136만7600원이다.

백두관 식당에서는 현재 12명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원래 15명이었지만 계약직 3명이 힘들어 그만두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수년간 근무한 베테랑들이다. 근무 연수는 평균 8년이고 18년 동안 일하고 있는 조리원도 있다.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범한 주부들이다. 김희영씨는 이 정도 봉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말에 쉬는 맛에 일한다고 한다. 하지만 고된 노동의 반복으로 허리디스크에 걸려 병원을 제 집 다닌듯 한다.

직원뿐만 아니라 알바생들도 고되긴 마찬가지였다. 퇴식구에서 설거지하는 알바생은 시간 당 9500원을 받음에도 너무 힘들어 하길 꺼려한다. 그래서 요즘은 몽골인, 중국인 학생이 대신 일한다. 힘들거니와 소문나 직원 은 물론 알바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다문화지원센터까지 인력 충당을 위해 문의까지 했다는 생협 관계자의 후문이다.

식당 막내 강윤지(가명)씨는 최저시급에 조리 수당 10만원을 더해서 한 달에 124만 1000원을 받고 추가 근무 수당도 있다. 임금 인상을 안 하지는 않는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과 호봉제로 1년 지날때 마다 월급이 2만원씩 오른다.

근로자들은 “학생 입장에서선 썩 식비를 원해 총학생회장도 직원 시급을 올리길 꺼려하고 학교는 별개라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최선을 다해 만드는데 복지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협 측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이해하지만 인건비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년 이사회는 백두관 식당의 큰 적자로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추고 식대 인상은 최소한으로 한다. 값싼 식대와 방학 기간 동안 적은 이용객으로 수입은 감소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작년부터 임대료와 시설유지비를 부담하고 식재료의 불가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은 증가한다. 적자 폭이 매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백두관 식당 하나로 보면 적자지만 생협 전체로 보면 흑자이다. 또한 근로장학생 임금을 인상하고 규모를 늘리겠다고



백두관 식당을 이용하는 구성원에게 식당 아주머니와 근로장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배식하고 있다.

약속했다.(947호 ‘생협 임무보조장학생 위한 예산 늘린다’ 참조).

황우화 생협 사무국장은 “근로장학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는다”며 구분해서 봐야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

어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과 7만원이었던 조리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민 기자

장애지원센터 학생회관 2층으로 이관

여학생 수면실과 위치 변경

장애학생들 용이한 접근 기대

접근성의 문제가 지적됐던 우리학교 장애지원센터가 학생회관 2층으로 위치를 이전한다. 이에 기존 2층에 있던 여학생 수면실은 3층으로, 장애지원센터는 3층에서 2층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 2008년 장애지원

센터 설립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일부 장애학생들은 그동안 센터의 위치가 장애학생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며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또한 942호(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장애지원센터)에서 비정상적인 센터의 위치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 센터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12월 중으로 장소를 변경 할 것을 결정했다.

장소가 2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학생회관 뒷문을 통해 센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다. 기존 여학생수면실에 있던 장관이 철거되고 기존 장비들이 2층으로 옮겨진다. 또한 센터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진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우선은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2층으로 임시적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됐다”며 “센터위치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학생회관 3층에 위치했던 장애지원센터가 2층 기존 여학생수면실이었던 방으로 옮겨진다.

모바일학생증 불편만 ‘가중’

코드 인식 및 실행 오류 빈번

생년월일 없어 신분 증명 불가

편의를 위해 제작된 모바일 학생증이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학생들은 모바일 학생증의 반복되는 인식오류와 신분증 대체 불가능 등의 문제로 거침없이 불만을 쏟아냈다. 올해 6월부터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카드학생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모바일 학생증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앱의 불편함을 느낀 송선경(생물산업학부1) 학생은 “도서관에서 좌석을 잡을 때 어플을 사용하지만 자주 인식오류가 뜬다”며 “직접 문의를 해봤지만 인식문제는 계속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모바일 학생증의 통신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중앙도서관은 모바일 학생증을 제작할 때 도움을 방

지하고자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통신이 불가할 때 앱이 실행되지 않거나 로딩시간이 길다는 의견을 냈다.

모바일 학생증은 카드학생증과 달리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현준(에너지공학과 1) 학생은 “모바일 학생증은 주점 같은 업체에서 신분이 인정되지 않아 하영드리미에 접속해 확인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도서관 허정임 수서기획팀장은 “모바일학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면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QR코드 오류문제에 대해 몇몇 학생들과 함께 테스트를 하며 점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소연 기자

단선된 동연 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CHANGE’ 내부사정 불출마

비현실적인 축제 예산 지적

총대의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게 된 ‘동갑내기’ 동아리연합회 정책토론회가 11월 25일 사회과학대학 중앙당에서 열렸다. ‘동갑내기’ 선거운동본부는 ‘동시다발’의 선봉명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변경했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CHANGE’ 선거운동본부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12월 2일 단선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패널로는 ‘소공녀’ 홍은혜(전자공학과 4) 총여학생회장, ‘함박웃음’ 동아리연합회 문경록(수학과 4) 회장, 김태양(사회학과 4) 부회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대동풀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궁금

증을 품었다. 학교 축제를 탐동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학 정입후보자는 탐동에서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성재(사학과 3) 학생은 “대동풀이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동아리연합회의 1년 총예산을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학(경영정보학과 2) 정입후보자는 “동아리연합회 예산 일부와 나머지는 외부 스폰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우산비닐커버 설치 공약에 대해 김성빈(언론홍보 1) 학생은 “우산비닐커버를 곳곳에 설치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쓰레기가 많아질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학 정입후보자는 “비닐커버 옆에 쓰레기통을 두고 최대한 쓰레기배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정·부입후보자들의 의견불일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정책에 관한 예산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많은 질문들이 쇄도했다. 김이래 기자

이번 학기는 제948호 신문으로 종간합니다. 다음호는 2016년 2월 19일(제949호)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신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합니다!

제주제2공항 건설은 제주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

도민의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힘으로
제주제2의 도약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니다!

상대적으로 협약 적어 학술자료 검색 어렵다

제주대 총 45곳 기관과 협의, 거점대 중 가장 낮아

예산부족 및 학술업체 독점 문제 해결해야

제주대가 타 국·공립대들에 비해 전자저널 및 학술DB업체와의 협력이 저조해 교내 구성원들이 자료를 찾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학술업체 12곳과 국외학술업체 33곳, 총 45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는 △서울대 308개 △부산대 119개 △전남대 109개 △충남대 88개 △경북대 83개 △강원대 81개 △충북대 80개 △경상대 77개 △전북대 73개 △제주대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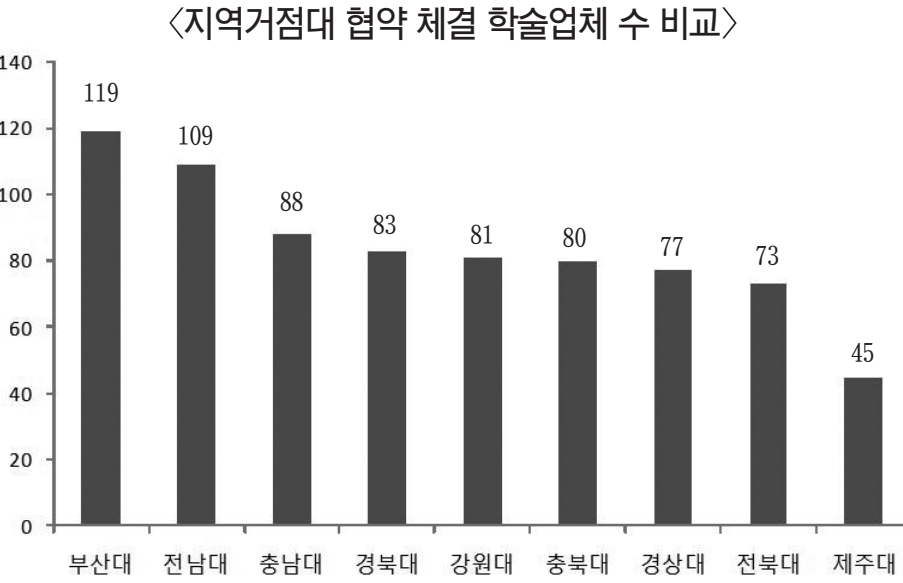
권유성(국어교육과) 교수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준비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1~2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자료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학교 측에서 학술자료 지원 같은 것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은 예산 부족문제와 학술업체들이 독점구조를 악용한 구독료 인상을 지적했다. 실제 2013.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2013년 약 13억원으로 책정돼 있던 도서관 예산이 2014년에는 약 10억원으로 줄었다.

더불어 예산 중 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비도서자료 구입 등에 쓰인 실제 자산 취득비(자료구입비)는 △2011년=6억5195만원 △2012년=8억7020만원 △2013년=10억5428만원으로 매년 20%이상 증가해왔지만 △2014년=8억525만원으로 37.8%가 줄었다. 또한 학술 출판사들은 매년 10% 내외의 구독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도서관 허정임 수석기획팀장은 “몇년간 우리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여서 도서관 예산도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더불어 학술업체에서 제공하는 학술DB의 경우 독점판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돼도 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도 교내 구성원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전자저널을 추가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



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와 협약을 맺은 학술업체사이트는 학교IP로 접속하면 무료로 논문이나 전자자료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내학술업

체 중 하나인 DBPIA 관계자는 “관공서나 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1년 단위로 전체 구독료를 측정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이래 기자

전국은 물론 거점대에서도 가장 싼 제주대 등록금

연재기획 등록금 집중 해부 <完> 학생들 납부하는 실질등록금

실질등록금 127만1500원… 무작정 인하가 능사는 아니다

지원 및 교육의 질 침해 우려, “체계적인 장학금 분배 우선”

“여러분이 제감하는 등록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내일로’ 내년 예비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혜택을 확대하고 복지 예산을 지켜내 실질적인 인하도 같이 이룬다는 입장이다.

강민우(환경공학과 4) 당선자는 “공약에도 내세웠듯이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다면 등록금 인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등록금을 더 이상 낮추면 대학 환경과 교육의 질 등이 침해됨을 우려했다.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등록금만 계속해서 인하한다면 정작 필요한 사업과 복지 등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작년 우리 대학의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은 △명목등록금=378만2400원 △실질등록금=127만1500원 △교내외 장학금=76만1700원 △국가장학금=174만9200원으로 밝혀졌다. 모두 작년 한해 학부생 기준 평균으로 분석됐으며 학생 평균 학기당 약 60만원의 등록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도출된다.

명목등록금은 학생들이 배부 받은 고지서에 명시된 등록금을 일컫는다. 실질등록금은 학생들이 수여 받은 교내외·국가·기타장학금을 명목등록금에서 뺀 후 남은 등록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대학 소속 A라는 학생이 학기당 납부해야 할 등록금은 160만원인데 C급장학금으로 54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실질등록금이 104만원이다.

대학연구교육소가 올해 전국의 모든 국

립 일반대학의 명목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1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대 명목등록금은 40만원이나 적은 수치다. 대교연은 국립대학의 전 계열(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공학·의학) 등록금이 2011년보다 인하됐으며, 인하율은 사립대학보다 다소 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1월, 전국 97개 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과 장학금 현황을 통해 후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제주대는 명목등록금은 94위, 실질등록금은 90위로 학생들이 전국 최저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거점국립대 중 실질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충남대로 170만7000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명목등록금은 경북대가 429만1600원으로 거점대 중 최상위를 차지했다. 거점대 비교에서도 제주대는 실질, 명목등록금 모두 최하위에 머물렀다.

조두환 학생복지과 장학팀장은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당장 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복지와 사업에는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무작정 인하는 것보다 현재 장학 제도를 개편해 잉여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지역거점대 실질등록금 비교〉

대학	실질등록금
강원대	165만9300원
경북대	158만4500원
경상대	134만6300원
부산대	151만700원
전남대	152만5500원
전북대	166만700원
충남대	170만7000원
충북대	160만100원
제주대	127만1500원

그는 이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재원도 10억원이나 남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규정대로 소득분위에 맞춰 수혜해야 하나 성적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교내장학금도 A급, B급, C급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등록금의 100%, 70%, 40%, 20% 면제 등 세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은 변화가 학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 학생팀, 영어경연대회서 우수상 수상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사업단(단장 정광중 초등사회교육전공 교수, 사라캤퍼스 부총장)은 일본 도쿄가쿠게이대학에서 열린 한일 공동주최 영어모의수업경연대회(IGT, I am a Global Teacher)에서 Difference팀(초등교육과 강명훈·양

희에서 제주대 팀은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대를 비롯해 경북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도쿄가쿠게이대에서 각 2개 팀씩 총 10개 팀이 참여했다.

Difference팀의 수업 주제는 ‘Making and Playing the Simple Instrument’이며 ICE(International Creative Ed-

ucation)팀은 ‘Volcanic Creation & Effects with Grandma Seolmoonde’였다.

한편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4개 대학 GTU사업단은 공동으로 해마다 교·사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모의 수업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번째로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백승규 기자

성 상담 위한 양성평등센터 설립 예정

교육에 그치지 않은 의식 개선 필요

성범죄 예방과 사건 처리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점담기구가 곧 제주대에 설치된다. 기구는 ‘제주대학교 양성평등센터(가칭)’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11월 26일 1.2.3부 세차로 나뉘어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허향진 총장과 김철수(전산통계학과 교수) 교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부는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시작됐다. 배은경 교수는 “한국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치며 급속성장을 해왔다”며 “때문에 세대 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 세대마다 생각하는 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젠더 갈등의 해소는 성역할 인식에 대한 서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 정영남(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 학교실) 교수는 타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양성평등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은주(간호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우리대학에서 일어났던 K교수의 강제성추행사건 처리의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성희롱 전담기구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백승규 기자



양성평등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구성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3부에는 은수용 여교수협의회장을 좌장으로 해 ‘제주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오홍식(사범대 생물교육전공) 교수, 김동욱(회계학과) 교수, 서영표(사회학과) 교수, 양덕순(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 홍은혜(전자공학과 4) 총여학생회장이 참여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이 사후의 가해자 처벌, 형식적인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개선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기구의 직속기관을 총장직할기관으로 할지 부총장직할로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홍은혜 총여학생회장은 “양성평등을 위해 남학우와 여학우의 의견을 듣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사람들

이동민 전기공학과 4학년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상재 메카트로닉스공 교수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선정

이동민(전기공학과 4)씨가 11월 27일 ‘201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동 주최로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신 교수님들, 꿈을 주신 대경엔지니어링 사장님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수상의 무게감을 줄여주고 사회에 나가서도 제가 받았던 도움 이상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10년 후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전문가로서 성과와 창업이라는 꿈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3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대학생 모바일 ICT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산업체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대상 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전기기사 등 6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백승규 기자

김상재(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가 11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ship)’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잠재력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한국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국제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에 공동참여하는 아난다구말 라마도스(30·인도) 박사는 현재 KAIST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대 박사과정 중에 ACS Nano(인용지수 13), Nano Energy(인용지수 10) 등 주요 외국 학술지에 15편의 우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인정돼 졸업 시에 제주대 ‘우수연구논문 총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상재 교수는 라마도스 박사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자체촉진수퍼패시터 및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제주대 석·박사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백승규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시형

학원

아라중

제주대

제주여고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국립제주대학교

2016학년도 전기 대학원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 과정

■ 전형일정

구분	기간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5.11.30.(월) 10:00 ~ 12. 3.(목) 17: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첨부서류 제출 (등기우편, 택배, 방문)	2015.11.30.(월) ~ 12. 8.(화) 18:00	· 제출처: 우)63243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토·일요일은 휴무
필기고사 (전공·전공영어)	2015.12.17.(목) 10:00 ~	· 장소: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면접고사	2015.12.17.(목) 15:00 ~	· 장소: 모집단위별 학과사무실
합격자 발표	2016. 1.13.(수) 예정	·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조회)

■ 문의처

- 전화: 064-754 - 3991

-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ac.kr)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실습 추억 속 아쉬움 담았다

연재기획 교생의 눈물 <完> 학생들과 3주간의 긴 여정을 마치며

기대와 다르게 직설적인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기도

진심어린 편지와 칭찬으로 끝까지 버텨낸 교생들

정신없이 지나간 3주간의 실습이 끝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여정의 마침표를 드디어 찍게 됐다. 항상 교생들을 밤샘으로 이끌었던 수업 준비와 우리를 항상 시험에 들게 했던 학생들과의 추억들, 교생들의 어깨 위에 짊어진 책임이란 이름 아래 힘이 들다가도 아이들의 작은 재롱 하나에 다시금 힘을 내던 그때, 교생들을 웃고 울렸던 3주간의 교생실습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다.

3주간의 교생실습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지도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고된 일정의 연속, 교사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 속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다양하다. 흔히 저학년 학생을 ‘외계인’이라 표현한다. 수업 중 어디로 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외계인들의 행동은 항상 교생들의 예상 밖이다.

◇학생들은 외계인?

A교생은 긴장과 설렘 속에 수업을 앞뒀다. 수업을 위해 몇날 며칠 밤을 새고 수업이 수업을 복기하고 연습한 채 수업에 들어

갔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학생들 앞에서 펼쳤다. 그러나 돌아온 한 학생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선생님, 수업 노잼” 예기치 못한 한 학생의 반응에 울상을 지은 A교생은 당황했고 수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망했다.

아이들의 말은 굉장히 직설적일 때가 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솔직히 말하는 것이겠지만 때론 교생들에겐 상처로 다가온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은 흔하진 않지만 가끔 일어나곤 한다. 아이들의 말뿐만 아니라 수업 중 행해지는 뜬금없는 행동들도 교생들을 당혹케 한다.

B교생은 철저부심하고 다시금 수업을 켜다. 통일 수업을 위해 현수막 등 다양한 수업자료를 직접 만들고 많은 공을 들였다. 나름 기대를 안고 수업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삐그덕 거렸다. 아이들이 현수막에 올라타기 시작하며 현수막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날리는 종이비행기도 활동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만들고 날려버렸다. 그렇게 B교생의 수업은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 버렸다.

◇웃고 울리던 실습기간, 추억 속으로

물론 이렇게 당혹케 하는 상황도,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이상의 뿌듯함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수업이 끝나면 쏘르르 달려와 꼭 안기는, 수업 때 배운 것을 쉬는 시간에 다시 따라 해보는, “선생님이 최고예요”라는 한마디 말, 힘든 실습기간을 그래도 버티고 이겨내는 데는 아이들의 몫이 크다.

그렇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실습 마지막 날, 아이들은 무리를 지으며 쏘르르 달려와 교생휴게실을 아침부터 이리저리 기웃거렸다. 교생선생님을 찾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뽕주뽕 내미는 편지들을 바라보면 한없는 감동을 받기 마련이다. 3주간의 모든 교생을 보살보는 기분이었을까? 마지막이라고 아이들이 준비한 이벤트, 리코더 연주와 함께 드디어 실습의 마지막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느새 아이들의 두 눈에 그렇그렇 맺혀있는 눈물은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실습의 마지막에 기쁘기보단 이렇게 마지막이 오게 돼 아쉬움과 그리움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3주간의 실습은 고된 일정이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3주간의 그 시간은 배움과 행복한 추억을 쌓았던 시간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을 앞면서도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안고 실습을 가는 것이 아닐까.

부찬우 기자

에티켓 부족한 학생들로 생활관 ‘몸살’

소음 공해·침 뺑기 등 비상식적 행동 일삼아

학생들의 무책임을 치우는 환경미화원… “서로 주의해야”

학생생활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벽 3시경 A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B씨가 A씨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와 잠을 잤다. 깜짝 놀란 A씨는 B씨를 깨웠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다음날 B씨를 찾아가 따졌고 그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이처럼 생활관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두가 잠을 청하고 있을 시간에 복도를 뛰어다니는 것은 일상이며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닥은 학생들이 뺨은 침으로 인해 얼룩졌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옛말이 됐다.

김진재(일어일문학과 1) 학생은 “아침에 화장실을 갔을 때는 어떤 학생이 바닥에 구토를 한 것을 봤다”며 “본인이 치우지 않고 가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은 고스란히 청소 어머니들 몫이 돼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이 늘어감에 따라 청소를 해주시는 어머니들의 한숨도 깊어져만 간다. 생활관에서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은 “간혹 학생들이 정말 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금언이라고 써져있는 곳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며 침을 아무데나 뺏고, 화장실 변기에는 음식물을 마구 버려 변기가 자주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적발시 퇴사조치 등을 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 조치를 강요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성인인 만큼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래 기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투척하는 학생들 때문에 생활관이 더럽혀지고 있다.

깨어 있는 청년들의 대화, ‘탐나는 청년이다’ 토론회

설문 결과, 제주 떠나고 싶은 대학생 660여명 중 절반 이상

청년의 꿈 찾는 방법 모색 기회
“모든 청년 문제의 핵심 취입”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이틀간 ‘탐나는 청년이다’ 제주 청년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MICE강당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1월 27일 현지훈(산업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과정) ‘탐나는 청년이다’ 총괄기획단장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그는 “도내 대학생 6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의 청년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하류 층이라고 여겼고 제주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도내 대학생은 58%에 달했다”며 “이는 제주 청년으로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무관심은 청년의 소외로 이어지고 결국 청년 정책 실효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청년층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청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지훈 ‘청년하다’ 준비위원장은 ‘청년을 버린 나라에 미래는 없다’ 강연에서 “모든 청년 문제의 핵심은 취입”이라며 “취업준비생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28일에는 김광철(사회교육과 4) 제주 평화나비 간사가 ‘기억하고 행동하는 제주 평화나비 이야기’ 강연에서 청년들이 가

져야할 사회적 관심과 행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박건도 제주청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제주 청년 왜 꿈을 포기하는가?’ 강연에서 제주청년들의 현실을 듣고 제주 청년들의 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탐나는 청년이다’ 기획단, 전국인문학연합동아리 ‘꿈’ 제주지부, 제주주민주치연대 20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기연 수습기자



11월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탐나는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제주 청년들의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설과, 예산 60억원 들여 석면제거 공사 시작

석면 함유 시설 위해성 등급 ‘무해’ 판정 받아… 건강에 지장 없어
건축자재 파손 시 파생된 비산가루는 종양 유발하는 발암 물질

지난 11월 18일 발행된 본지 제946호(‘캠퍼스 곳곳에 발암물질 석면 노출’ 기사 참조)에서 교내 석면검출 문제를 다뤘다.

이에 시설과는 석면조사와 함께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석면제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 함유시설의 위해성 등급은 ‘낮음’으로 나타나 학내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에 무해함을 나타내는 결과가 도출됐다면 안심시켰다.

석면조사 결과 비석면 시설은 233,285㎡이고 석면 함유시설은 121,643㎡로 나타났다. 시설과는 남은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 약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산 중 8억을 투자해 리모델링 공사(생명대 2호관) 3,121㎡를 시작으로 안

전 환경 조성사업(실험실) 3,324㎡ 공사와 함께 천정 681㎡(사범대)보수공사 등 총 8,055㎡를 석면을 제거했다.

하지만 석면으로 구성된 건축자재가 파손된 채 방치해 두면 문제가 발생한다. 파손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확산돼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면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은 약한 내구성을 지닌 탓에 쉽게 부러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건물 석면 제거 하위대학 현황에서 제주대가 4위에 랐었다. 이는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거 작업이 미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면으로 구성된 본관 천장이 파손된 채 그대로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산가루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에 대해 정상기 시설과 팀장은 “내년부터 생명대 1호관 같은 낙후된 건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거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심소연 기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일반전형)	특 전	· 석· 박사과정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Full Time) ※ 소속된 연구실에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금과는 별도로 인건비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음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비용 지원 (유럽 : 알브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국내 인턴십 비용 지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 국·내외 학술대회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한국남부발전(주),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주),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원서접수	· 2015. 11. 30.(월) 10:00 ~ 12. 03.(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ac.kr)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졸업 후 진로	· 본 전형은 필기고사(전공 영어, 각 전공별 전공과목)와 면접고사로 합격자 선발 · 전공영어는 영문해석문제로 출제 · 전공과목의 출제범위 및 방식은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064)754-4400로 문의 바람 · 면접은 기본적인 소양, 학구적 태도, 입학후 학업계획, 영어능력을 평가함
필기시험	· 필기고사: 2015. 12. 17.(목) 10:00 ~	선발방법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각 전공선택에 대한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 (064)754-4400로 문의 바람. · 대학원 풍력공학부 홈페이지 (https://gwa.jeju.ac.kr) 공지사항의 “2016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및 “예비신입생을 위한 풍력공학부 소개” 참조.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5. 12. 17.(목) 15:00 ~	문의처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대중교통의 편리성 제고와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원도심과 신 거주 밀집지역, 공·항만간 대중교통 연계노선을 신설·조정하였다.

〈표 7〉 신설·조정된 주거 밀집지역과 원도심을 잇는 노선과 노선도

노선 조정 (30번 3대) : 터미널~탐동~터미널⇒화북휴먼시아~동문로 터리~탐동~노형주공
노선 신설 (70번 4대): 원노형~용담~여상~터미널~원노형노선 신선회 (17번 3대, 5.21일):노형주공~서사로~대학동~이호해수욕장
노선 신설 (9번 2대): 한라도서관~용담~여상~일도지구~제주대



〈표 8〉 관광객의 원도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설·조정된 노선과 노선도

국제부두⇒원도심⇒공항 연결 노선 신설 (90번, 95번 각 3대)
90번 : 국제부두~원도심 (여상~동문로터리~용담)~공항~신제주
95번 : 국제부두~임항로~터미널~공항~신제주
노선 조정 : 공항 경유 조치 (38번 5대) : 하귀~공항~용담로~함덕



3) 공원 · 광장 · 도로 · 주차장 확충

공원과 광장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주차장과 도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든다.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탐라문화광장, 김만덕 기념관, 금산수원지 생태공원 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탐라문화광장 사업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중양로~산지천간(중로2~2호선)도로개설사업’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교통체증 심화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일도1동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원활한 물류수송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도심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4) 편의 · 문화시설 확충

일도1동에서는 2015년 5월에 동 자치적으로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1층은 경로당과 주민쉼터, 2층은 다목적 공간과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회관 신축은 그동안 원거리 이동 및 공간 협소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동민과 관광객의 편리한 쇼핑과 관광을 위해 도서관, 관광안내 지도, 지역상가 홍보물, 도 시청 홍보물을 비치하여 정보제공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물리적 측면은 도시재생의 기본적 측면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건설에만 치중한다면, 결국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 사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쇼핑과 관광을 위해 도서관, 관광안내 지도, 지역상가 홍보물, 도 시청 홍보물을 비치하여 정보제공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관광 상품 개발’을 분석 초점으로 볼 것이다. 자치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일도1동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경제 관련 사업임을 확인하였고, 일도1동의 주민들은 상권이 살아나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 사업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원도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상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동문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인도 불법점용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 결과 보행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주시에서뿐만 아니라 동문시장 상인회에서도 침체된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를 하였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wow 369페스티벌’이 있다. 거리축제 wow369페스티벌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주최하고, 제주시활성화구역연합상인회 주관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는 3다도에서 6개 시장이 9가지 즐거움을 전하는 축제라는 의미이다. 6개 시장은 동문공설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재래시장, 중앙로 상점가, 중앙 지하상

가, 칠성로 상점가이며, 9가지 즐거움은 볼거리, 체험거리, 추억거리, 살거리, 맛거리, 먹거리, 당점거리, 즐길거리, 알릴거리를 말한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의 다양한 이점을 홍보함으로써 이용객 증대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3〉 2014년 wow369 페스티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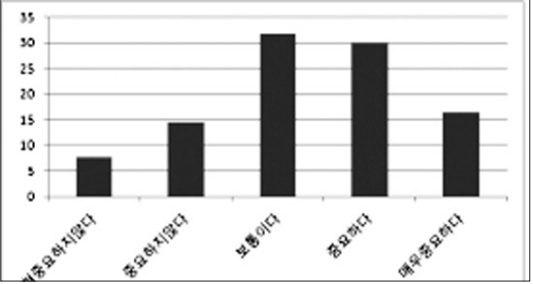
일도1동에서 이루어지는 벼룩시장으로 ‘맹금영폴장’이 있다. 앞의 두 사업처럼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이외에, 이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다. 맹금영폴장은 칠성동 문화카페 ‘왓집’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카페 앞 골목에서 열리며, 개별 작가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주변 상점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왓집은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작은 브랜드들이 모여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소비자와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4〉 문화카페 왓집



2) 관광 상품 개발

〈표 9〉 중국 및 크루즈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쇼핑 및 관광 상품개발의 중요도



일도1동 주민들은 ‘중국 및 크루즈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쇼핑 및 관광 상품개발의 중요도’에서 응답자의 46.1%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2.1%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일도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 사업에는 중국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있다. 원도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크루즈 여객선의 제주 기항시간 연장하고 인근 상권과 연계하려는 계획이 있다. 2012년에 크루즈 여행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치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시 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가 손잡았다. 이 당시에는 대형 크루즈가 4~7시간 기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틈새시간 동안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에는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과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와 협의 하에 지역상권 방문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제주지하상가 등 원도심 상권을 이용했다.

마스터플랜에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원도심 상권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크루즈 거리를 조성한다는 항목이 있다. 현재 원도심행 버스는 시내버스와 시티투어버스만 있고, 크루즈 거리는 탐라문화광장을 건설할 때 조성될 예정이다. 관광안내원을 통해 여객터미널에서 동문시장까지 갈 때, 걸어서 가는 관광객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두 지점 간의 거리는 걸어가기에 다소 멀고, 화물차도 다녀서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카페 왓집에서 주최하는 벼룩시장의 경우, 이는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민간 행사이다. 다만 개인이 기획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골목에 카페를 만들고 벼룩시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카페 왓집 시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변 상인들 중에는 이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개인 사업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자체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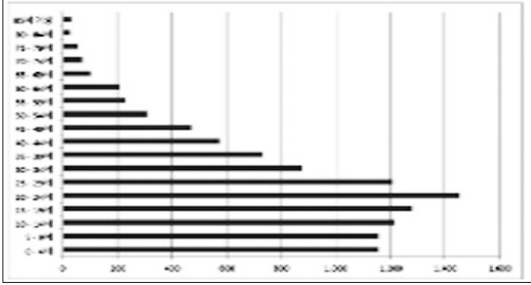
관광 상품 개발에서 크루즈 거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은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여객터미널 관광 안내원에 따르면 이곳이 가장 마지막 부두에 있기 때문에 직접 걸어서 원도심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각 부두 앞에 트럭의 이동이 빈번해 안전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크루즈 거리를 보다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미관상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하기 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사회·문화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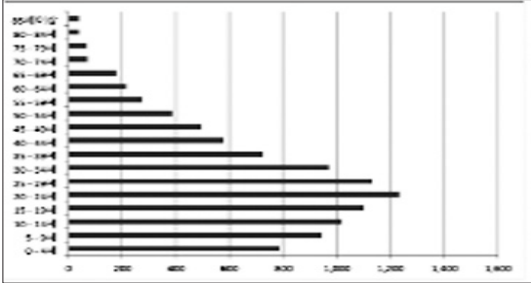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측면의 분석초점으로는 ‘상주인구 유입’과 ‘지역 특색 강화’가 있다.

1) 상주인구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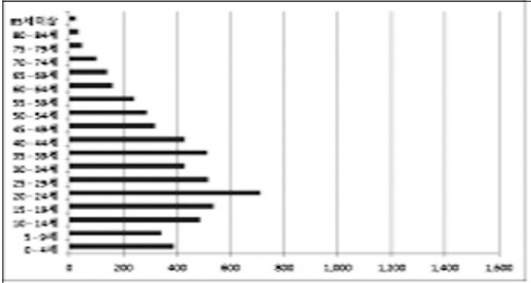
〈표 10〉 1985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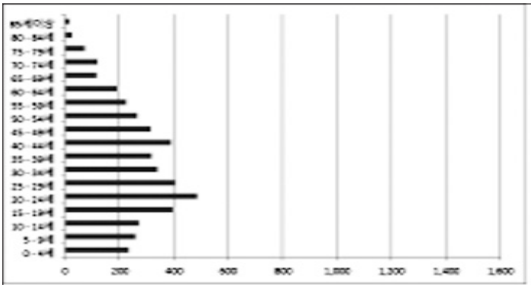
〈표 11〉 1990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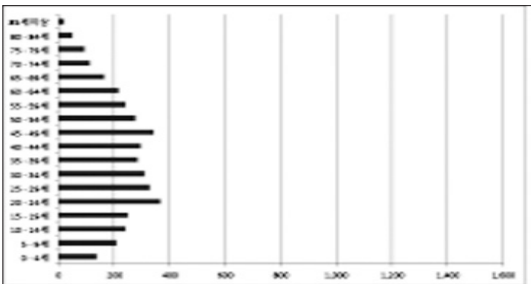
〈표 12〉 1995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표 13〉 2000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표 14〉 2005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표 15〉 2010년 일도1동 연령별 인구 분포



위 6개의 표를 살펴보면 일도1동의 인구분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다. 일도1동이 도심으로써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가장 번창했던 마지막 시기인 199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일도1동 전체인구의 69%를 차지했다. 그리고 신제주가 발전하기 시작하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기는 했으나 일도1동의 총 인구가 1985년에 비해 85%이상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인 숫자는 확인하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5년과 1990년 일도1동의 인구분포는 전형적인 ‘도시형’을 띠고 있으나 2010년에 와서는 그 형태가 완전히 사라졌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1985년이나 2010년이나 크게 차이가 없으나 젊은 층의 인구가 1985년에 비해 2010년 확연히 줄어들어 연령 간 인구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되었다.

〈표 16〉 제주시 총 인구에서 일도1동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일도 애도	10,120	2.9	5,480	1.5	5,239	1.4	3,860	1.0	3,829	0.9

〈표 17〉 제주시 총 인구에서 연동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인구 수 (인)	비중 (%)	인구 수 (인)	비중 (%)	인구 수 (인)	비중 (%)	인구 수 (인)	비중 (%)	인구 수 (인)	비중 (%)
노형동	7,843	1.5	15,472	3	23,194	4.5	43,908	8.2	51,823	9.8

〈표 18〉 제주시 총 인구에서 노형동예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인구 수(인)	비중 (%)
연동	25,693	4.9	30,917	6.1	31,903	6.2	38,819	7.3	41,818	7.9

위의 <표16>에서도 제주시 내에서 일도1동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에서 0.9%로 점차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17>, <표18>과 비교해 볼

때, 같은 기간 제주시에서 연동과 노형동을 포함하는 신제주의 인구 비율이 1991년 6.4%에서 2011년 17.7%로 급증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이다.

2) 지역 특색 강화

문화적 요소에는 ‘지역 특색 강화’가 있다. 지역 특색 강화는 역사적 연속성 유지에서부터 그 범위를 넓혀 한 지역 내의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발굴·창조해 내는 것을 말한다.

지역 특색 강화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중 일도1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제주시 원도심 답사’와 ‘옛길 보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있다.

제주시 원도심 답사는 탐라시대부터 최근까지 제주역사문화의 중심지였던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물론 원도심 답사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최근의 답사의 특징은 민·관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제주역사문화연구소는 ‘원도심에서 탐라를 만나다’를 주제로 원도심 걷기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원도심 속 탐라’, ‘탐라의 옛길’, ‘탐라 유매길’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그림 5〉 원도심 걷기체험 행사 관련 포스터



옛길보존은 ‘제주상’ 안팎을 중심으로 원도심에 남아있는 옛길을 찾아 정확한 옛 지명을 표기하는 등 세부적인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원도심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도1동 자치위원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일도1동에서는 제주상과를 포함하여 그 주변의 남수각, 해질골 등의 옛길을 보존하여 간판으로 표기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일도1동 자치위원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일도1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벽화사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 초에 사업계획을 시작하여 10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다. 이 사업의 예산 금액으로는 6000만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으며, 벽화 작업은 학생들 등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전문 화가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벽화의 위치는 동문시장에서 새마을 금고가 있는 부근으로 정해졌다. 굳이 이 위치를 선정할 이유로는 이곳이 비록 벽화의 길이는 짧지만 동문시장에 근접하여 있으므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벽화를 접하기에 좋고, 역으로 동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벽화 사업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벽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계획단계에서는 벽화의 내용으로 자연풍경 보다는 제주도만의 풍습을 주로 하는 그림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벽화의 내용은 제주 역사의 큰 줄기(태조의 제주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를 따른 신화나, 풍경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유로 전문 화가마다 각자의 전공이 다르고, 신화의 경우 제주의 신화를 주 전공으로 한 화가의 수가 거의 없으며,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그릴 수 없는 현실과, 꽃 그림 역시 제주민화를 적용하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했다.

“.....처음에 저가 들어갔을 때 어 신화 들어가면 팬 참.. 신화 작가니까, 그래서 신화가 부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가가 부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거기서 미술감독이 있거든요 업체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쪽으로 물어보면 그니까 작가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작가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한 벽을 맡아서 하고 또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쪽 벽화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으로 기획하는 그쪽에서는 어쨌거나 크게 묶어서 기획을 해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그 기획안을 가지고 작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그림에 맞는 작가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보면 아무튼 어기는 그예요, 그니까 과거, 태조, 과거, 현재, 미래, 그런식으로, 꽃 그림은 민화화거든요.....그니까 전통 민화를 그대로 그리게 아니고, 그니까 과거에 꽃에 대한의미를 그니까 민화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과거 현재 가기 전이잖아요, 그거를 꽃으로 형상화 시켜서 약간 예쁜 모습으로, 어두운 그림은 그렇잖아요, 근데 멕시코 벽화나 그런데는 어두운 벽화도 하거든요, 캐나다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다 지우라고 그래요.....멕시코 벽화나 캐나다 가면 막 역사 다크.. 다크 스토리를 막 그려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크 스토리 그러면 막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거 왜 그리냐고.. 그 사람만 그려도 뭐라고 하는데 있어요, 귀신 나 온다고.”

〈그림 6〉 태조의 제주



〈그림 8〉 제주민화1



〈그림 10〉 제주민화3



다음으로 현재 건입동과 일도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있다. 탐라문화광장은 제주시 구도심 지역에 5만㎡규모로 쇼핑과 공연, 음식 등을 결합시킨 야간 관광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고, 이 일대를 문화·관광·쇼핑 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탐라문화광장은 핵심공간인 탐라문화광장 (1광장)을 중심으로 6개의 광장을 더해 총 7개의 광장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림 12〉 탐라문화광장 조성 기본 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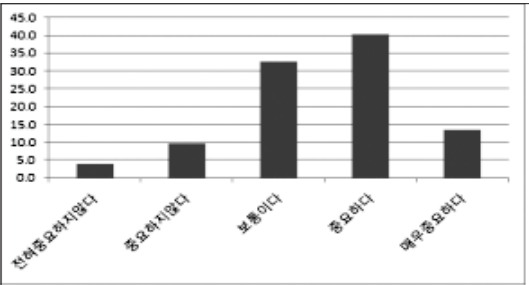


1광장은 1만8천 이들의 고향 제주도의 신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신화적 공간상까지 가미한 메인광장이다. 광장 내에 조성되는 조형물이나 건축물은 제주 신화 테마와 연계해 디자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탐라문화광장을 중심으로 낡고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군집지역 여섯 곳마다 각각 테마정원 (수묘도 광장)을 조성하는데, 여섯 테마는 각각 쇠(金), 달(月), 풀(草), 물(水), 바람(風), 돌(石)로서 각 공간마다 독창적인 공간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지천 동측의 약 450미터에 달하는 거리에 세계음식대마거리를 조성해 한국·중국·일본, 유럽 등의 대표적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 음식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맞은편인 산지천 서측 450미터 거리에는 탐라문화광장과 테마정원을 둘러싼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원도심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시기는 2011년~2015년으로, 현재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표 19〉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중요도



<표1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도1동 주민들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53.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회전교차로인 현 동문로터리를 없애고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과 왕복 4차선인 산지로 차선을 2차선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원도심에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원도심 도시재생의 최종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했던 인프라 및 제반시설의 점검 등 원도심과 일도1동만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단순한 인구유입이 아니라 젊은 연령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도심 재생의 목적이 실버타운 건설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이해를 두고 있다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이런 점이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순수하게 상주인구유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앞서 언급한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인구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예상된다.

다양한 역사적인 유물이나 전통문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측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을 잘 활용하여 도시를 특색 있게 꾸미는 것은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성공을 이끄는 매우 필수적인 측면이 된다고 본다. 그러한 예로 현재 일도1동에서는 옛길 터를 보존하고 정비하여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걸어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오래된 집들의 벽에 제주를 표현하는 벽화를 그림으로써 도시 구석구석 제주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게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단기적인 사업으로 여겨 끝내지 말고 지속성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꾸준히 ‘제주시 원도심 답사’와 같은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시 옛길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벽화의 개수를 늘려 어느 곳을 가도 제주만의 특색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관광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업 과정 및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고찰하여야 한다. 또한 탐라문화 광장을 완공한 후에도 이 광장을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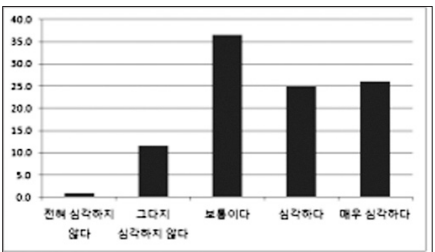
4. 의식적 측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측면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들이 주거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 주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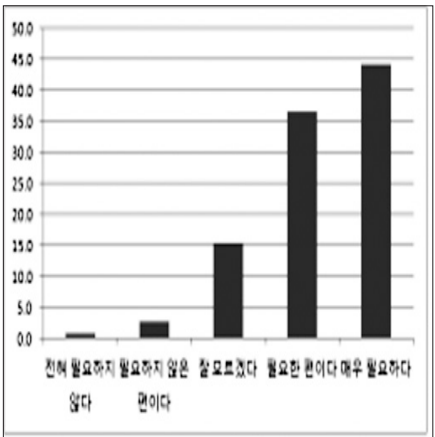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제 부각된 것은 최근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이다. 도시개발 및 재개발 중심의 도시관리정책을 통한 쇠퇴한 근린의 정비방안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되어 사회적 단절, 커뮤니티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도시 쇠퇴가 지속·확산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보다 중대된 도시관리역량의 확보가 필요해진 시점에서 주민참여는 그 필요성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 일도1동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시행 여부와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식적 측면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볼 것이다. <표 20> 일도1동 쇠퇴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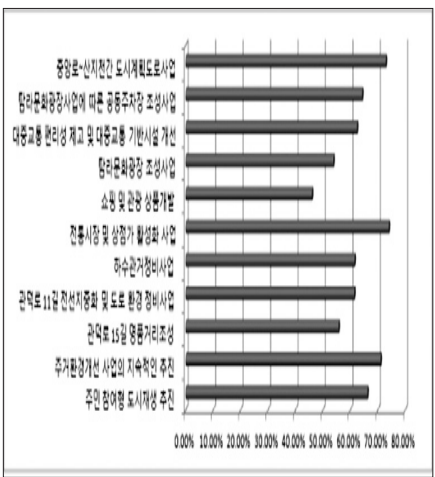


<표 21> 일도1동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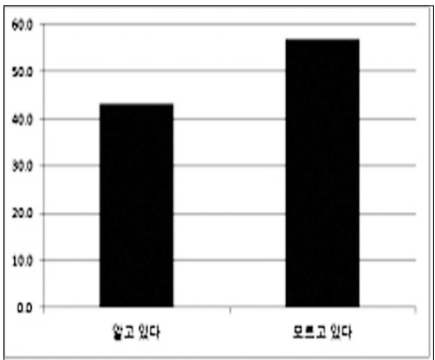
<표 20>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일도1동의 쇠퇴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표21>를 통해 응답자의 80.7%가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3.9%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였다.

<표 22> 일도1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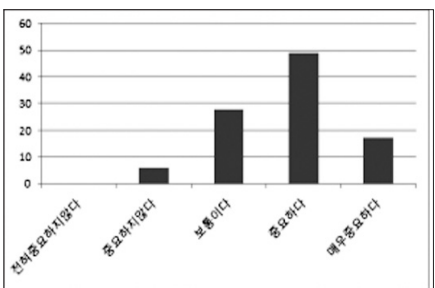


<표22>는 일도1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각각의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중요성이 74.1%로 일도1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중앙로~산지천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73%, 주거환경 개선의 지속적 추진이 72.1%로 나타났다.

<표 23> 도시재생 정책 인식 여부



<표 24>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모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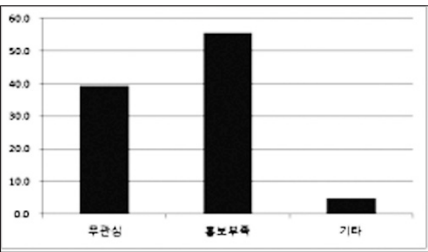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가 43.3%, ‘모르고 있다’가 56.7%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4>는 주민들이 정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 중에서 39.3%가 ‘무관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55.7%는 ‘정보부족’이라고 답했다. 결국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인원의 절반 이상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은 절반이 채 되지 않지만, 이 사실이 일도1동 주민들은 지역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도1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책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았다.

<표 25>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의 중요성



성

위의 <표25>를 살펴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66.3%로 중요하지 않다는 5.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일도1동 주민들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 측면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도1동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부족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사업주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지역이 변화해나갈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할 경우 사업주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사업 참여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일도1동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인원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은 만큼 주민들 스스로가 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도1동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여하는 주민은 10~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일도1동 자치위원회 관계자 역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하였다.

Ⅳ. 맺음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20~3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기존에 남아있는 원도심만의 특징을 잘 살리고, 그 위

에 새로운 측면을 가미하여 매력적인 도시를 만든다면 도시재생의 최종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현재 도시재생의 각 측면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의 네 가지 측면별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도 의식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재생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주민들 간의 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체의 효과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다양한 인구의 유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일도1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인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식적 분석초점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는 원도심 재생이 어느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연구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들을 각 분야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도1동 도시재생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평가나 차후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제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관한 자료는 2013년에 발표된 ‘원도심 마스터플랜’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부족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기타 신문자료와 현장조사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제주시 원도심 전체를 하나로 묶어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지역을 선정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원도심 재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가 제주시 원도심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도심으로 대표되는 5개 동들의 사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만으로 원도심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후 원도심의 다른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타 연구가 진행되어 이런 한계를 보완해주었으면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도1동이라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역할과 그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도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각 입장을 균형 있게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도심 재생과 일도1동의 현황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위원회, 전문가, 도 측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특정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하였다. 하지만 일도1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어떤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데 집중하다보니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는 다양하게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끝〉
*가작 논문은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제주대미디어(<http://news.jeju.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심사위원>	
진 관 훈	
행정학과 겸임교수·경제학, 사회복지학 박사·심사위원장	
최 낙 진	
언론홍보학과 교수	

심사평

시사·역동적인 논문주제이나 논문작성 기초 중시해야

2015년 백록학술상 응모논문들이 2014년과 같이 일부 학과에 편중돼 있어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응모편수에 비해 주제가 다양하고 시사적이거나 역동적인 논문들이 있어 다소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또 이번 백록학술상 응모논문이 많지 않아 4편 모두에 대해 개별적인 심사평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동문재시장을 중심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정책수혜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논리 전개와 내용의 흐름, 주장이 무난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에서 다소 무리하게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논문 전체의 흐름에 혼란을 줬다. 차라리 이 부분을 논문에서 제시하는 조사방법, 즉 양적조사인 설문조사와 이를 보완하는 심층면접으로 대신해 설문지구성, 통계기법 등을 서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설문조사와 심층조사의 결과를 부각시켜 이를 결론과 제언으로 연결시킨다면 보다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의 실태 연구-일도1동을 중심으로-’는 제주시 원도심 중

에서도 쇠퇴현상과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한 일도1동의 도시재생 현황을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 역시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제주사회의 시대적 수요와 일치하여 사회적·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논문작성법에 벗어난 표현과 표식, 서술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시되는 표나 그림, 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전체 논문의 흐름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이를 보완하는 심층면접의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결론과 연결시켜 보다 풍성한 논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분석틀에 의한 분석결과와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연계시켜 이를 결론으로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七支刀를 통해서 본 百濟와 倭의 관계’는 七支刀 제작배경을 살펴보고 그러한 의견들을 이용해 百濟와 倭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七支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글이다. 이 글은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주제연구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는 논문으로 여겨지지만 논문 작성의 기본적인 틀을 지키지 않고 문장흐름이 고르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기타 많은 논문을 읽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를 통해 ‘원석’과 같은 이 논문

이 다듬어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머리말에서의 문제제기가 논문주제 선정의 이유와 부합되는 면이 적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차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마치 연설문이나 야사를 읽는 듯한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전개가 중요한데 이 글은 ‘史實과 추측의 나열’로만 결론내리고 있어 아쉬움이 컸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생각해보는 아시아 공동체’에서는 남과 북의 경제상황을 소개 비교, 분석해 경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아시아도 경제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글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논문이라기보다는 과제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글은 논문 작성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이나 논리전개가 전혀 없이 단순히 교과서적 사실의 나열로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주제를 논문화하려면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기타 많은 논문을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다. 물론 일정 주제를 가지고 이를 일관성있게 정리해 보는 것도 나름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이 논문이 되려면 논문작성법 기초부터 논리전개, 용어나 개념어 사용 등에 대한 기본,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에 재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당선 소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의 실태 연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문제에 관심

일 년 동안 이 논문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처음 논문을 쓸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었는데 어느새 논문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선 이 논문을 쓰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교육과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같이 논문을 쓴 홍혜경, 김성우, 김세훈, 신유지, 부동환, 정일준, 좌준서, 현익진, 황서지, 강예령, 고나현, 김나영, 김은희, 김진우, 최근영, 현남철 학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심층면접과 질문지에 응해

주신 일도1동 관계자 분들과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월초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중에서도 더웠던 5월 16일에 모든 조원이 소중히 자료를 얻기 위해 한마음으로 질문지를 돌렸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풍성한 논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제주시 원도심에 도시재생의 실태연구는 원도심 중에서도 일도1동 지역을 선정하여 일도1동의 도시재생 현황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문에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강 솔 이 신 동 섭 안 근 영

루려다 보니 모든 원도심 지역을 조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다. 사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쇠퇴 문제는 최근에 아닌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지역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이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다시 한 번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사회공헌
1위
은행

NH농협은행이 있어
대한민국의 내일이 더 든든합니다

[100% 국내자본은행 / 4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이웃사랑, 나눔의 힘

NH농협은행

NH농협카드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CA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교수시론



양웅준
영어영문학과 교수

“

나가사키 평화공원은

주객이 전도된 것

일본의 우경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

둘하르방



전지민
기획부장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힘을 가지는 정치 형태고 힘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다수결 원칙’ 즉 투표이다. ‘다수결 원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다수에 의한 폭력이며 다양성이 절여되는 전체주의로 빠진다. 역사에서 돌아켜보면 다수의 의견은 수많은 오류를 범했다. 다수의 독 일인들은 지도자로 히틀러를 뽑았고,

나가사키 평화공원과 일본의 속마음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이라고 하니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가사키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원폭 투하의 현장이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 일본의 나가사키에 평화공원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렇다. 나가사키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인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연합군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비운의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나가사키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도 할 수 없지는 않다. 연합군의 원폭투하작전에 의하면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로 수도인 도쿄는 제외하고 군수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군 사령부가 있는 히로시마(8월 6일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와 군수 및 중공업 시설이 온집해 있는 고쿠라였다. 연합군은 고쿠라에 투하하기로 하고 출격을 했으나 비행 실수, 기상 악화, 연료 부족 등의 이유로 제2목표인 나가사키 상공에 진입하여 공업지대를 임시목표로 핵폭탄을 투하했다. 왜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야

했는지는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원폭 투하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희생양인 것처럼 역지를 부리면서 평화공원이라고 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국가들을 보자. 독일과 이탈리아를 예로 든다면, 전후에 자신들의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뉘엿뉘엿하게 세계의 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일본은 어떠한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일본 시민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만행으로 더 많은 세계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를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가사키에 원폭투하가 되자 일본인만이 아닌 수많은 포로로 잡혀간 외국인들이 같이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그들에 대한 흔을 달래주려는 노력을 했던가 하는 것이다.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장소를 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세계에 홍보하면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일본의 극도로 우경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말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TV에 간혹 흘러나오는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을 볼 때 아직도 일본은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 2차 세계대전에서 총칼을 겨누고 싸우던 당사자가 아니던가? 그런 나라가 중국의 힘이 강해지니 서로 손을 잡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격정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세계 강대국의 세계 질서 개편의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1 위은 일부터 시작해 보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친절을 몸에 익히도록 하자. 그리고 독서를 하자. 책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찾아가듯 쉬지 말고 앞으로 걸어 나가도록 하자. 이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것은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란스러워야 할 대학 강의실이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

‘다수’라는 가면을 쓴 ‘가짜’ 민주주의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수에 의한 폭력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져 소수의 다른 의견이 탄압받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은 침묵했고 동의했다. 소수의견이 결집된 사회를 현대 민주주의 환경에 적용해 보자, 동성애자·흑인·빈민·여성·노인과 같은 소수 집단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를 위한 투표는 ‘대단한 성자 남셨네’라고 조롱받는 위선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 올바른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 방법이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 ‘숙의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리로 나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때리고 버스를 부시면서 시위를 하는 걸까? 서영표(사회학과) 교수님은 사회운동은 소통이 막혀있어 자신의 의사를 공식화된 통로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격렬한 시위로 발전하는 경우는 정치적 시스템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936호, 담론통: 사회통 참조). 이 행위는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존 롤스는 〈사회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에 대한 헌법상의 이론이 항의를 규정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적 권위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반대와 구분한다. 그리고 그 이론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정의로운 민주 체제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조건들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박근혜 집권 하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사회가 아니고 무식한 정권에 침묵하고 공포에 의해 자기 검열하는 사회이다. 사방으로 소름이 막혀 있고 농민·빈민·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을 돌아올 수 없는 절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1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는 이대

로 명칭히 절벽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센 몸부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소수는 고통 받고 있다. 백두관 식당 아주머니들은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학내에서 어떠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에 입맛에 맞는 일만 하면 그만이고, 교직원들은 애써 자기 밥그릇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라고 협동조합 제도가 있지만 불한다. 그리고 그 이론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정의로운 민주 체제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조건들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박근혜 집권 하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사회가 아니고 무식한 정권에 침묵하고 공포에 의해 자기 검열하는 사회이다. 사방으로 소름이 막혀 있고 농민·빈민·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을 돌아올 수 없는 절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1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는 이대

사설

2015년 한국의 민주주의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프랑스영화제의 2015년 폐막작인 ‘디판’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디판은 스리랑카 내전을 피해 프랑스로 간 한 남자의 이름이다. 영화가 끝나고 프랑스 영화인 두 명이 영화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프랑스 사회가 오랫동안 톨레랑스(tolerance)를 내세웠지만 이제 관용의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했다. 파리 테러 이후 텔레비전에 비친 하원의원들은 자기 이야기만 할 뿐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크게 실망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텔레비전에 비친 국회와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의 담화 발표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대학 강의실, 상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대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조차 그것은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명령을 수용하거나 상태를 공격하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들을 뿐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나 합리적인 상호이해가 결여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면 그것은 곧 반항이며 규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란스러워야 할 대학 강의실이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

로 채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지도 모른다. 더욱이 교수들마저도 합리적 비판과 토론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권위주의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사소한 다름과 분쟁이 발생하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소리부터 지른다. 모두가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권위주의와 힘의 논리를 체득함에 따라 위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군림하는 것이 몸에 각인되어 버렸다. 모방송의 드라마에서 프랑스인 마르티 지점장이 내뱉은 ‘한국 사람에게 권위주의가 어울린다’는 비아냥이 ‘모욕’이 아니라 ‘부끄럼’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서 집필진이 누구인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제주의 제2공항 부지를 발표하는 순간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이야기할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국가를 향한 국민의 몸부림은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찍힌다. 두 명의 영화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프랑스인들의 우리는 최소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선 앓을 것이 없다. 만들어야 할 것만 있을 뿐이다. 최소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토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정의·창조의 기치를 되새기다

‘엄친딸, 엄친아’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한국 사회의 단면은 결코 쉬이 지나칠 수 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천재에 열광하는 모습은 빈곤한 우리의 현재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치원을 다닐 나이에 미적분을 척척 풀고 8살에 대학을 입학한 송유근을 보면서, 노벨상을 당장이라도 타낼 것처럼 환호와 응원을 보냈던 국민이 그의 박사논문 제출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게다. 그러나 폭죽이 꺼지기도 전에 최연소 박사논문은 표절의 시비가 일었고 결국 논문 게재가 취소되고 말았다. 지도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밝히면서도 어디에서 옮겨온 것인지 숨겼던 비윤리적인 태도는 광명의 천사 무시퍼가 추락하듯 최연소 박사라는 성공신화를 지우우 18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홀로 남겨두었다. 우리는 아직 황우석의 성공신화가 쌓아올렸던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였고, 척수마비가 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우리는 벗겨져버린 슬리퍼처럼 찾지 않는 물건이 되었다. 그의 연구가 자기 표절과 조작으로 잠정되었음이 명백해졌음에도 그의 거짓말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제보자를 탓하고 그가 연구를 재개하길 바라며 추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석 사건으로 인해 세계 학계에서 한국의 논문들

이 재평가를 받아야 했으며 의심의 눈조리와 감시 속에 한동안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쓴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다행인 것은 이를 계기로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 윤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기관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를 하다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바라는 효과가 재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라산의 성판악 코스처럼 오랜 시간을 견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면 세상이 꼭꼭 숨겨놓은 진리는 그 민낯을 겨우 우리에게 보여준다. 제주대학교의 교훈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진리(眞理)·정의(正義)·창조(創造)가 담고 있는 의미는 연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구란 이 세상에 숨어있는 진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며,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이루어내는 창조는 타인의 것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거짓과 편협으로 만들어진 진리는 사상누각이 되어 허물어질 뿐이며 이 위에 다른 연구와 학문이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쉽게 길을 가려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 일이 반면 교사가 되어 이제 탐구를 통해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독자기고

버스기사 불친절 개선을

임지현
사회학과 4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장애학우도우미를 하고 있다.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친구의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점심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함께한다. 성실하고 똑부러진 그 친구 덕분에 이동보조를 하는 것 외엔 사실 내가 딱히 도움일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고충이 있다면 바로 하교 시 버스탑승에 대한 문제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조차 지키지 않는 버스운행행태 때문이다. 며칠 전의 일이다. 그 친구의 집은 버스를 한 번 놓치면 거의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곳이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기다리던 버스가 오는 게 보였다. 마침 정류장 앞에 다른 버스가 세워져 있어서 인지 버스는 정류장 앞을 지나쳐 꽤 떨어진 곳에 가서 차를 세웠다. 그리 멀지는 않은 거리였지만 하교시간이라 가득 찬 학생들 사이를 시각장애인인 그 친구와 함께 뚫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버스 앞까지 단 몇 걸음 남았을 때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 버스를 놓치면 오를줄을 벌써 30분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해졌다. 그 친구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버스 쪽으로 뛰어가 기사님께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된다”며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려고 했다. 버스 앞까지 다섯 걸음 정도만 오면

되는 거리였다. “바로 근처에 있으니 금방을 수 있다”고 하니 “바쁘다 그럴시간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계속 사정하자 짜증스러운 어조로 “여기(버스 앞에)와서 기다려야지. 빨리와라”했다. 정류장 앞이 아니라 차가 어디에 설치 알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말인가? 겨우 그 친구를 버스에 태워 보내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잔 수일이 있어 다시 학교에 올라가다가 문득 시계를 봤다. 해당 버스가 원래 출발하는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다. 내가 그 친구를 보내고 학교입구까지 올라왔을 때 시간은 오후 4시 18분이었다.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출발하면서 1분도 안 되는 시간도 기다리지 못할 만큼 바쁘다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시각장애인인 그 친구의 도우미를 하면서 버스에 용에 고충을 느꼈던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 친구가 채 버스에 올라타지 않았음에도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그냥 출발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버스를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것,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바라기도 민망하다. 1년 전부터 성인기준 버스요금은 200원 올랐다. 그러나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캠퍼스를 즐기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다. 대학 내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교를 다녔던 나는 사회를 진출하기 위한 생활만 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을 스펙을 위한 삶으로 살았다. 그러나 제주대학교에 다니며 다른 의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다양한 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업단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었다. 그 예로 학교 행사로 연극을 하던 중 사업단의 권유로 전국 사업단 포럼에 전국 대본을 제출하게 되었다. 전국의 300여 개의 사업단과 경쟁을 하는 것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하지 않던 중 당당히 선정되었다. 학과공연으로 끝날 줄 알았던 우리가 제주도를 넘어 육지인 전북대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지난 11월 3일에 열린 포럼은 전국의 다양한 대학교의 사업단들이 모여 홍보를 하고 거대한 공연장에서 선정된 학생공연 4팀이 공연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한 팀이 바로 사학과 학생들의 연극으로 제주대에서는 최초로 선발되었다. 모든 비용은 사업단에서 지원해주어 개인경비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 개인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 학교 내에서 지원해준 기회를 활용하였기에 많은 인원이 제주도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린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로 상명대, 전주대, 제주대의 세 개 대학교 학생들 총 12팀이 하나의 주제로 제한된 시간인 24시간동안 스토리텔링하여 경합하는 행사이다. 무관심으로 인해 자칫 놓칠 수 있었던 기회를 학우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참을 지새우며 만든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 방송계통의 심사위원 분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고 뜻밖에도 대상을 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급은 물론 뒤돌아에서 다른 대학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참여의 경험들은 개인적으로는 알아보고 취여하기가 어려운 일들이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스킬을 배우며 새로운 인맥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과 다른 새로운 일들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학교에서 주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손희경
사학과 1



뇌.섹.남의 시사용어

MCN



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인기 드라마 중 주인공이 TV에 나오자 기뻐하는 가족의 모습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출세했네’,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TV에 나오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험이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채널을 열고 방송하는,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열렸다. 모바일 시대는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방송국이 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생중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아프리카TV에서 채널을 열고 방송하는 개인 제작자가 인기인이 된지 오래다. 개인 방송으로 고수입을 올리는 것은 물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다. 또한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스타’들도 적지 않다. 소수의 개인 전유물 범위를 넘어섰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며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개인 제작자가 늘면서 이들이

여여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다. MCN은 제작자의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을 대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일종의 소속사 개념이다. 스타를 발굴하고 키우는 곳이 연예기획사라면 MCN은 개인 제작자를 발굴해 미디어 스타로 만드는 일을 한다. 이런 MCN의 확산은 공중파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바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이다. 이 프로그램의 플랫폼은 MCN과 마찬가지로. 가수과 요리사, 마술사, 개그맨 등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그 과정은 편집을 거쳐 TV판 ‘마리텔’에 등장한다. ‘지상파+MCN’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는 ‘생산자’가 되면서 이들 사업에 이용하는 MCN이 세로이 부상하고 있다. MCN과 직접 계약해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MCN의 콘텐츠를 상품을 노출하는 등 이미 MCN은 마케팅 시장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방송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며 시장의 블루칩이 되고 있다. 이제 인터넷과 웹캠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더라도 누구나 내가 제작한 TV 속 주인공, PD, 작가가 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콘텐츠만 확실하다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부한우 기자

학내구성원 소통을 통해 ‘웃는 학교’가 되자

좌담 Review 2015, Preview 2016

제주대신문은 11월 30일 2015년 제주대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6년을 맞이하며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에는 △조두환 학생복지과 장학팀장 △현지훈(에너지공학과 4) 부총학생회장 △강민우(환경공학과 4) 총학생회 회장 당선자 △백승규(언론홍보학과 3) 제주대신문 편집국장 △현수지(언론홍보학과 3) 교육방송 편성국장이 참석했다.

2015 대학의 주요사건

현지훈 부총학생회장 2015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아라대동제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형사 없는 축제를 준비했고 학생들이 발로 뛰고, 직접 기획을 함으로써 멋진 축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이동했던 것도 학생들의 축제 집중도를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강민우 당선자 대학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이슈였던 국정화문제가 기억에 남는다.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후임자 입장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현수지 편성국장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에서 눈에 띈 사건은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건이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학생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궁금한 사항들을 위해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던 것이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백승규 편집국장 업무추진비와 국정화 문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업무추진비 사건이 터졌을 때 총성은 한 학생이 울렸지만 ‘So아라’ 총학생회가 총장과의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답변을 얻어냈다. 하지만 국정화는 학생회가 타 대학에 비해 조금은 비활동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점이 주요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학의 가치와 발전방향

조두환 장학팀장 우리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취업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본분인 학문적 소양을 열심히 닦아야 한다.



11월 30일 제주대신문 자료실에서 2015년을 되돌아보고 2016년을 바라보는 좌담회가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민우 ‘내일로’ 총학생회 회장 당선자, 현지훈 ‘So아라’ 부총학생회장, 조두환 장학팀장, 백승규 편집국장, 현수지 편성국장.

현지훈 학교가 학문을 배우는 곳은 맞다. 하지만 대학생이면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틀에 박히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학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강민우 부총학생회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대학이란 곳은 학문 외에도 더 큰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전 준비하는 단계인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돼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목표의식이나 꿈 등이 너무 한정적이다. 대학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해나가야 할 것은 한 방향만이 아니라 여러 방향을 알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수지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에서 ‘대학은 곧 없어질 것이다’라는 방송을 접했다. 나왔던 내용은 ‘대학생은 적자생존을 한다.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닌 적어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교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학생과 교수는 갑과 을의 관계이고 대학은 모두 똑같은 인간을 찍어낸다’이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 덜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은 일방적인 것만을 배운다.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는 수업 체계와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생각

강민우 두 가지 상황을 말하고 싶다. 등록금을 내면서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학생들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만족한다면 현재에도 만족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라면 인하를 주장하고 싶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한 가지만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백승규 등록금 인하는 반대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내는 실질등록금이 1년 평균 약 127만원이다. 1년에 약 130만원의 수업료를 내는 고등학생보다도 적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3분위를 받으면서 전액 장학금 비율도 높다. 여기서 등록금 인하를 더한다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조두환 특정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인건비, 물가 상승률은 증가하고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하는 곤란할 것 같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려면

강민우 학생회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전에 학생회와 학생들과의 대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노력이 이뤄졌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현수지 방송국 기사를 하면서 학내 교직원을 만날 때 많이 들은 말이 ‘학생기자가 찾아와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학생이 직접 찾아와하는 말은 별로 없었어요’다. 소통하려는 학생들의 노력과 받아들여려는 대학본부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

백승규 ‘내일로’ 총학생회의 정책에 포인트란이 있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일을 진행하겠다고 들었다.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것을 즉각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조두환 교양과목 같은 경우 학생들이 너무 쉬운 과목만 듣는 등 도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교양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 얼마 전에 교양과목 개편이 이뤄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힘을 써야 할 것 같다.

2016 제주대를 그리다

조두환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찾았으면 좋겠다.

현지훈 아쉬움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2015년이였다. 남은 기간 내년 총학생회가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다. 2016년에는 학생들 외에도 교수, 교직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현수지 2016년은 밝게 보고 싶다. 우리 학교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학생들도 즐거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좀 더 투명해져서 학생들이 많이 알리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승규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가 돼서 기관이나 학생회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제주대가 됐으면 좋겠다.

강민우 벚꽃이 만개하는 봄, 우리 학교는 정말 아름답다. 1년 365일 내내 봄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

김해건 기자

서 평-수필 오디세이: 수필시학을 찾아서

감동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



권 유 성
국어교육과 교수

아마도 고등학생 때였던 듯한데,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을 보며 지난 속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수필을 읽으며 받았던 감동은 시나 소설을 읽으며 받았던 감동과는 질감이나 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안성수의 <수필 오디세이>는 지금까지 문학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 감동의 비밀을 풀어볼 엄조차 내지 못했던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해준 책이다. <수필 오디세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학’이라거나 ‘붓 가는 대로 쓰는 문학’이라는 수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내가 사로잡힌 결과였을 것이다.

“수필 시학을 찾아서”라는 부제를 단 <수필 오디세이>에서 저자는 수필이라는 장르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필이 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어느 장르와 마찬가지로 그것만의 고유한 이념과 작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저자의 이 말이 만만치 않은 하중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20여 년에 걸친 강단과 창작 현장에서의 치열한 고민 과정에서 체득된 경험적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문학 이론은 물론, 철학, 역사,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영역의 이론적 논거들을 활용해 그것이 치밀하게 논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책의 문면을 통해 저자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교의 진폭은 자못 경탄을 자아내 기까지 한다. 서양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바슐라르에 이르기까지, 선비 정신의 전통에서부터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학적 실험까지,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부터 신생 학문인 문학치료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다양한 시공간은 물론 학문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저자의 자유로우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여정은 그것 자체로 매우 흥미진진

한 통섭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디세우스의 여정과도 같은 저자의 오랜 통섭의 결과 구축된 수필시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저자는 수필의 장르적 이념을 진실한 경험에 오랜 반성적 사유와 미적 상상력을 가미함으로써 세계와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으로 정리한다. 저자는 이런 경지를 ‘영성체험’ 혹은 ‘절정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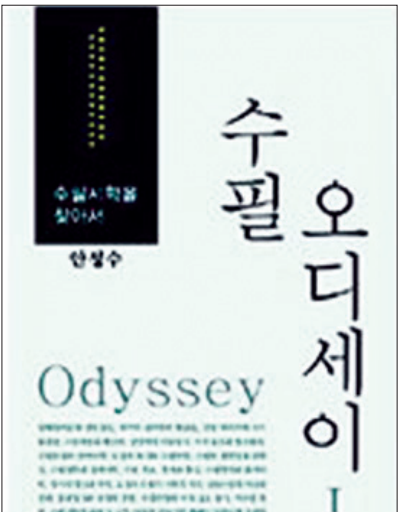
그리고 저자는 수필이 독자를 이 같은 ‘절정 체험’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해 다양한 작법을 활용한다고 말한다. 인간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 체험’을 표현하기 위해 수필에서 활용되는 고도의 반어는 수필 작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자는 수필시학이 세계와 우주의 진리를 계시하는 철학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작법이 함유한 문학성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통합의 과정이 이미 완수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런 의미에서 수필은 과거의 문학이 아니라 미래의 문학이며 완성된 문학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학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자신의 수필시학 탐구의 길을 50년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필 오디세이>는 그 과정의 “중간휴게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수필 오디세이>가 보여주는 논의의 풍성함과 높이만으로도 은근한 압박을 느끼는 나로서는 저자의 남은 탐구의 길, 아니 차라리 구도의 길에 도달하게 될 도저한 경치가 얼마나 멀고 높은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후학은 다만 묵묵히 그 뒤를 따를 뿐이다.



저자: 안성수 국어교육과 교수
출판사: 수필과비평사(2015)

www.ihalla.com

제주지역
신뢰도 1위! · 발행부수 1위!!

리얼미터 전국지방신문 여론조사 · 2015년도 한국ABC협회 인증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한라일보

